

## 농장의 계분처리 실태



## 계분, 농가 수익원으로 되돌릴 수 없나?

## 1. 계분처리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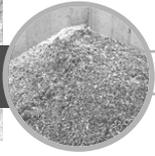
양계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분처리 문제이다. 과거에는 계분이 농장의 수익원으로 큰 몫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극히 일부 농장을 제외하고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근절되어 축산 전체적으로 축분처리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사육수수의 증가로 축분 공급량이 소비량을 웃돌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계분을 비롯한 축분처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농가에서 계분을 처

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 단 노지에서 계분을 야적할 경우 여름철 폭우로 인해 계분이 쓸려 내려가면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나, 계분창고 등 어느정도 쌓아놓을 공간만 확보되면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더욱이 계분발효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25kg 한포에 2~3천원씩을 받고 판매할 정도로 양계산업의 효자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달라졌다. 정부에서의 환경규제와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르면서 농가에서 직접 계분을 처리, 판매하는 형태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다보니 계분처리가 임대업자 또는 계분비료공장에 맡겨져 운영되면서



농가의 비용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에서는 그나마 계분을 처리해 가는 것 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농가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 2. 농가의 계분처리 형태

계분을 처리하는 형태는 계분업자들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 생산, 판매하거나 계분비료공장이나 유통상들에게 직거래하는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다.

주변에 계분비료공장이 많거나 과수원, 채소작물 등 수요처가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계분을 처리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은 채란업이지만 종계와 육계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평사에서 비교적 마른 상태로 처리가 되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가 이

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1) 임대 처리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계분처리형태가 임대 처리이다. 계분 발효시설을 갖춘 농장이더라도 전문 처리업자에게 발효, 판매까지 맡기고 있으며, 계분창고가 있는 농가에서는 계분을 창고에 옮겨주고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농장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발효에 쓰이는 톱밥이나 왕겨를 공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분처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계분에 주로 사용되는 톱밥가격도 5톤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이며, 톱밥이나 왕겨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농장들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3만수를 경영하는 농장의 경우 1년에 400~500만원을 계분처리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수를 경영하는 한 농가는 월 40만원 정도에 고정 계약하면서 그나마 나은 조건에 처리하고 있었지만 여름철 비수기 때에는 계분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현재 넓은 계분처리장(발효시설 완비)을 확보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분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5만수 규모의 한 농가는 계분업자들이 최근 들면서 계분 운반비를 요구해 오기 시작했다며 자기 땅을 가지고도 계분을 처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 2) 자체 생산, 판매

계분을 농가에서 자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농가는 규모가 크고 계분처리시설이 완벽한 농장으로 계분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분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분비료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투자시설이 만만치 않고 허가절차가 까다로워 시설을 갖추려 해도 엄두를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포천지역에서 5만수를 사육하는 J농장의 경우 계분을 직접 발효, 생산, 처리하고 있는데 일하는 인부의 인건비 외에는 수익이 없어 그저 처리되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 3) 비료공장 또는 유통에 처리

계분을 쌓아놓을 수 없는 농가는 정기적으로 오는 계분비료공장 또는 유통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농장은 유통인들로부터 턱없는 처리비용을 요구받거나 제때에 처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양계를 하는 Y농장의 경우 물계분을 직접 유통상인들을 통해 1년에 약 200만원에 처리하는데 과거에는 년 600만원을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분창고가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3. 계분비료공장 시설 확충 시급

계분은 화학비료에 비해 자연친화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비료원료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높고 수요가 늘면서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양계인들은 현재 있는 계분비료공장에 자금을 지원하여 처리시설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은 3곳의 계분비료공장이 있어도 그동안 처리시설이 부족해 애를 먹었지만 철원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면서 주변 양계인들이 계분처리의 고민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처럼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분처리 시설을 지원,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소비를 늘리거나 대북지원 비료를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인 계분비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계분의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나 농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거나 자금부족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농가 지원책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농장들을 벤치마킹하여 계분이 수익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